**가격은 없다 (윌리엄 파운드스톤 / 동녘사이언스)**

**가격에 속지 마라!   
가격은 집단적인 착각이며 위험한 조작 장치다**

**이메일은 무료인데, 왜 문자메시지에는 돈이 들까?   
가격도 봉지 크기도 그대로인데, 왜 과자 양은 줄어들었을까?   
그 이유는 당신이 가격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발견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세계를 움직이는 숫자들은 그렇게 견고한 것도 아니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도, 혹은 논리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가격심리학에서는 가치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조건적으로 변하며, 유령의 집 거울에 비치는 모습처럼 흐느적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경제생활에서 적용되고 있는 가격 조작에 대해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소비자들의 가격 심리학을 연구해왔다. 1960년대 심리학자 사라 리히텐스타인과 폴 슬로빅은 가격이 얼마나 모호한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을 보면 이들이 원하는 것 혹은 선택한 것들과 이들이 부여하는 가격들은 일관성 없이 따로 놀았다. 심리학자들은 지금까지도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계속 씨름 중이다.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내부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환경에서 받는 암시에 의해 새롭게 구성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아모스 트버스키와 대니얼 카너먼이 밝혀냈다. 이스라엘계 미국인 심리학자인 트버스키와 카너먼은 전설적인 팀이다. 이제 70대 중반을 훌쩍 넘긴 카너먼은 프린스턴 대학의 우드로 윌슨 스쿨의 매우 활동적인 원로 학자다. 카너먼보다 세 살이 어린 트버스키는 1996년에 59세의 나이로 이미 세상을 떠났다. 카너먼은 2002년에 미국 경제학자 버논 스미스와 함께 노벨상을 받았지만, 트버스키는 단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다. 카너먼과 트버스키의 주요 연구 분야는 행동주의적 의사결정 이론으로 불리며 심리학에서는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이 책은 행동주의적 의사결정 이론에 기여한 카너먼과 트버스키를 중심으로 이 분야에 기여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이 이론이 밝힌 가격 심리학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출판사 서평)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이지성 / 다산라이프)**

**“20대, 나를 살리는 생존 독서를 시작하라”   
고수에게 직접 듣는 ‘운명이 바뀌는 독서법’**

책만 제대로 읽어도 운명이 뒤바뀐다! 직장생활 5년 만에 불현듯 좌천 통보를 받으며 현실을 직시하게 된 홍 대리. 특출 나게 잘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띠게 뒤처진 적도 없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 하나?   
그때 운명처럼 독서 멘토 해일을 만나게 되고 과연 독서로 인생이 변화될까라는 의심을 품은 채 ‘운명을 바꾸는 책 읽기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국민 희망 멘토인 이지성이 그의 멘티 정회일과 실제로 진행했던 독서 멘토링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다. ‘1년 365권 자기계발 독서’를 통해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방법을 실제 주인공인 저자에게 직접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자.   
  
**머리가 아닌 성공한 인생에게 배운다**  
저자는 독서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씨름하던 사람에서 그 반대의 사람으로, 꿈의 성취를 믿고 싶어서 발버둥 치던 사람이 꿈의 성취를 확신하는 사람으로, 소위 성공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산 증인인 셈이다. [독서 천재 홍 대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독서 미션들은 이러한 저자의 경험에서 탄생했다. 자기계발서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성공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이러한 독서법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느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독서와 인생변화 이야기를 부록에 간략히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장 독서를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을 위해, 독서 팁과 독서 리스트도 수록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레드오션 전략 (조너선 번즈 / 타임비즈)**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에 답이 있다!**

“왜 비즈니스의 40%는 적자인가? 무엇이 문제이며 어디부터 고칠 것인가?”   
번즈 교수는 세계 유수의 기업 중역들과 MBA 수강생들이 열광하는 ‘MIT 최고의 강의’의 주인공이다. 현실을 콕 집어내는 예리함과 탁월한 유머감각을 겸비한 번즈 교수는 “뜬구름 잡는 블루오션 타령은 집어치우고 기존 레드오션 시장에서 적자의 너른 바다에 잠겨 있는 ‘흑자의 섬’을 찾으라”고 일침을 가한다.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상품, 고객의 마음을 읽는 최고의 서비스, 탁월한 전략과 경영 수완, 파격적인 연구 개발과 투자… 이 모든 것에 앞서 ‘기본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절대 힘든 일이 아니라면? 번즈 교수는 모든 비즈니스가 잃어버린 40%라는 ‘흑자의 섬’을 되찾는 법을 이 책에 담았다. ‘수익’을 중심에 둔 사고 방식, 판매 방식, 경영, 리더십 등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낱낱이 짚어본다!   
  
**성과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팔고, 운영하고 경영하라!**   
레드오션에서 ‘흑자의 섬’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각광받는 최고의 인재가 된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수익’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법, 2부 ‘수익’을 내는 판매(세일즈), 3부 ‘수익’을 제대로 경영하는 법, 4부 ‘수익’을 리드하는 리더십이 그것이다.   
‘MIT 최고의 강의’로 꼽히는 만큼 자질구레한 잔소리나 거시적이나 현실에는 도움이 안 되는 훈계 따위는 거의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어떻게 사고하고 분석하고 실행해야, 성과표 상의 파란색 수익 곡선이 빠르게 상승할지 알토란같은 ‘방법론’으로 일관한다. 이 책은 대차대조표의 개념을 알려주는 회계 책도, 비즈니스 플래닝을 가르치는 MBA 책도 아니지만, 그 어떤 자료보다 가장 쉽게 ‘무엇에서 어떻게 수익을 캐낼 것인지’ 확실히 알려준다.   
  
**일 잘하는 것은 기본이다, 사업계획은 덤이다, 이제 ‘흑자의 섬’을 찾는 ‘본질의 눈’을 키워라!**R&D와 창의적 혁신은 모든 기업의 모토다. 혁신적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한 기업은 기존에 없었던 블루오션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비약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혁신이 모두의 탤런트는 아니다. 게다가 그런 엄청난 혁신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미 우리 비즈니스에서는 막대한 잠재 수익이 새어나가고 있다. 그러니, 진정 기회가 있는 곳은 뜬구름 잡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새나가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레드오션이다!   
꿈을 꿀 줄 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것을 지속적인 수익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경영자가 아니라 몽상가일 뿐이다.   
이제 우리 산업에는 ‘흑자를 견인하는’ 유능한 인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비단 재무 책임자뿐 아니라 유능한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레드오션 전략’을 필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출판사 서평)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박경철 / 리더스북)**

**대한민국의 지성, 실천하는 비판가, 열정적 독서광, 청춘의 멘토   
시골의사 박경철이 이 시대 청춘에게 던지는 통렬한 자기혁명의 메시지!**  
청년은 세상을 어떻게 읽고 소통해야 하는가? 청년은 자기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시골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치열했던 고뇌와 시행착오의 기록이다.  
  
그는 자신의 작은 성취를 앞세워 ‘인생은 도전’이라는 상투적인 조언을 남발하거나 감상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는다. 대신 아프지만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냉엄한 현실을 전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고뇌로 가득한 시행착오의 기록’이며, ‘가슴 뜨거운 열정의 산물’이고, ‘젊음이 젊음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다.   
  
**박경철이 제안하는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   
  
저자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들에게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머릿속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좋아 보이는 것, 기발하고 멋져 보이는 목표들만 가득하기 때문이다. 허울 좋은 스펙만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된 채, 진정한 자기 꿈과 목표가 무엇인지조차 생각할 겨를 없이 기성세대가 만든 시스템에 휘둘린 결과다.   
그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출발한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1장 ‘나를 찾아가는 시간’에서는 무엇보다 자아찾기가 주를 이른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자기 성찰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2장 ‘세상과의 대화’에서는 세계 인식을 다루고 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탐색을 시도했다면,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나 외의 것들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나를 감동시키는 자기혁명’에 대해 다룬다. 자아를 찾고 세계를 인식했다면 틀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 스스로가 정한 한계와 프레임의 감옥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다. 그리고 자기혁명을 위한 보다 실전적인 지침을 담은 것이 4장인데 ‘자기혁명을 위한 배움과 성장’이라는 대주제 아래 청년의 애티튜드,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는 법, 진짜 학습이 되는 공부법, 시간활용, 책읽기, 글쓰기 등을 프랙티컬하게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장 ‘미래를 여는 변화와 도전’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변화의 큰 물줄기와 미래 패러다임에 대해 보다 거시적인 시각을 갖도록 도와준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정직하다.**   
   
‘세상은 스승의 바다’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방대한 독서와 삶의 곳곳에서 만난 이들을 통해 축적된 지혜로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적 차원의 체험에서 끝내지 않고 사회 시스템으로까지 확대시키며 방대한 인문학적 통찰과 에둘러 말하지 않는 단호한 문체로 독자를 매료시킨다.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지식과 지혜의 씨실과 날실을 엮는 과정 중에도 자기 삶을 샘플로 제시함으로써 해석과 비판을 넘어서는 자기반성과 사유를 담아낸다.   
박경철의 말처럼 인생은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늘 정직하다. 99도의 물이 100도가 되기를 기다리며 노력한 이를 세상은 외면하지 않는다. 저자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에 가슴 떨리는 이라면 누구라도 청년이요, 청춘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시작의 두근거림을 느껴보라고 전한다. (출판사 서평)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